

## “편집 경력, 실무 경력이 없는 기획은 공허합니다”

어린이책 시장에서는 햇살과나뭇꾼, 장수하늘소, 우리누리, 과학아이 등처럼 출판사 밖에서 기획을 하는 기획자나 기획자들의 집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이다.

그 중 동심여선은 편집공방을 통해 2명의 어린이책 편집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동심여선의 문윤희 실장은 대기업 사보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대기업은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출판사는 직원교육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 안타까워 사실 자신이 할 일은 아니지만 책임감을 갖고 편집공방을 통해 어린이책 출판계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무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또한 육아포털 사이트(0to7.com)에서 그림책 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가 내고자 하는 책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련된 책들이다.

“어린이책을 만드는 편집자나 사람들이 ‘어린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해요. 어린이책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 어린이책은 발전하거나 틀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윤희 실장이 판단하기에 지금까지는 어린이책 시장이 책을 내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기획에 신중을 기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 책을 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질적인 면을 추구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외서 비중이 높다고들 하는데 사실 좋은 외서들의 수입은 국내 창작동화 시장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수준 낮은 국내서를 출간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준 높고 질이 보장된 외서를 출간해 국내서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무조건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 그는 회의적이다. 엄마가 너무 개입하게 되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신이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을 키울 기회가 없다.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부모가 조언하는 역할, 따라서 원하는 책은 열 권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게, 즉 좋은 책과 나쁜 책 9대 1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다.

“어린이책 기획집단이 나오는 것은 출판사의 숙련 인력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출판사를 나와 출판사를 차리거나 기획사를 만드는 것밖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전 책을 조금씩 천천히 내자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요즘은 위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그가 받는 작업비는 인세10퍼센트, 편집기획 진행비로 2퍼센트를 받고 있다. 동심여선童心如仙은 ‘아이 마음은 신선과 같다’란 의미의 한자성어로, 방정환 선생의 묘비명이기도 하다. **한문**